

# 연탄·김장김치·방한용품... 금융권, 곳곳서 온정 나눔

## 우리금융

기금공모, 방한용품 포장 봉사

## 신한금융-제주은행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

## KB국민·KEB하나은행

지역본부별 연탄·김치 등 지원

## OK금융 환경미화 활동 진행

신복위 복지시설에 김치 전달



손태승(오른쪽 첫번째)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지난 11월 임직원과 함께 겨울용품 포장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우리금융그룹



OK저축은행 임직원 및 봉사자들은 지난 11월 안산 호수공원 중앙광장에서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OK금융그룹



신용회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이 지난 11월 서울 은평구 평화로온집에서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신용회복위

전 금융권이 연말을 맞아 따뜻한 나눔 활동에 동참하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그룹은 최근 '소외계층 따뜻한 겨울나기'를 주제로 기금 공모 및 방한용품 포장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우선 우리금융그룹은 우리사랑기금 공모사업을 통해 20개 복지기관에 총 1억5000만원의 기부금을 지원했다. 기부금은 우리금융그룹 임직원이 매월 급여의 일부를 자발적으로 기부해 조성한 기금으로 마련됐다.

또한 이번 공모사업의 하나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지난 11월 임직원들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아동 복지관에 기부된 겨울이불과 방한용품 포장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신한금융그룹은 제주은행과 함께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를 개최했다. 제주도 내 독거노인과 저소득 가정에 겨울철 김장김치를 나눠 '따뜻한 금융'을 실천하는 연말 행사로, 임직원 80여명과 자원봉사연합회 자원봉사자 50여명 등 약 130명이 함께 행사를 진행했다.

KB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도 겨울을 맞아 지역 영업본부별로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KB국민은행 강남 제2지역본부와 임직원은 하남시 장애인들에게 김장 김치를 후원했으며, 충북지역영업그룹은 충주시와 함께 중위소득 80% 이하 16가구에 연탄 4800장을 지원했다. 이어 K

EB하나은행 충남북영영업본부와 영남영업그룹은 지난 11월 각각 충남·대구 지역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를 펼쳤다.

서민금융을 담당하는 상호금융 등 기관에서도 겨울맞이 봉사활동에 분주한 모습이다.

OK저축은행, OK캐피탈 등 OK금융그룹 계열사 임직원들과 대한적십자봉사단 약 700여 명은 연말 사회공헌 대축제의 일환으로 함께 안산을 찾아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OK금융그룹의 사회공헌 활동은 같은 날 다른 지역에서도 동시에 이뤄졌다. 강원도 원주시에서는 지역 복지시설을 찾아 지적 장애인 및 연로하신 어

르신들과 함께 일과를 보내며, 시설 내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환경 미화 활동을 진행했다. 이어 부산 중구에서는 '사랑의 밥상' 행사를 갖고 해당 지역 독거노인 120가구에 임직원들이 직접 제작한 밥상과 전기담요, 의약품 등의 방한용품 및 안부편지가 담긴 선물 꾸러미를 함께 전달했다.

신협중앙회에서는 취약계층 가정에 연탄 등 난방, 방한용품을 전달하는 '온(溫)세상나눔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번 캠페인에는 전국 443개 신협에서 약 7400여명의 신협 임직원 및 조합원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7000여 취약계층 가정에 연탄을 비롯한 각종 난방용품을 전달했다.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와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은 양 기관 직원 50여명이 참여해 담근 김장김치 1000여 포기를 장애인 복지시설인 '평화로운집'에 전달했다. 또한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양 기관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기부금 300만원도 전달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갈수록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금융사들 또한 연말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게 됐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이웃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민영 기자 hong93@metroseoul.co.kr

## 3분기 성장률 0.4%... GDP물가 4분기 연속 마이너스

저성장·저물가 지속에 디플레이션 우려 고개 성장률 2% 달성도 희박

올해 3분기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4%를 기록했다. 두 달 전 발표된 속보치와 동일한 수준이다.

다만 한국은행이 전망한 연 2.0%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4분기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최소 0.93% 이상 높아야 한다는 점에서 2%대 성장은 낙관하기 힘든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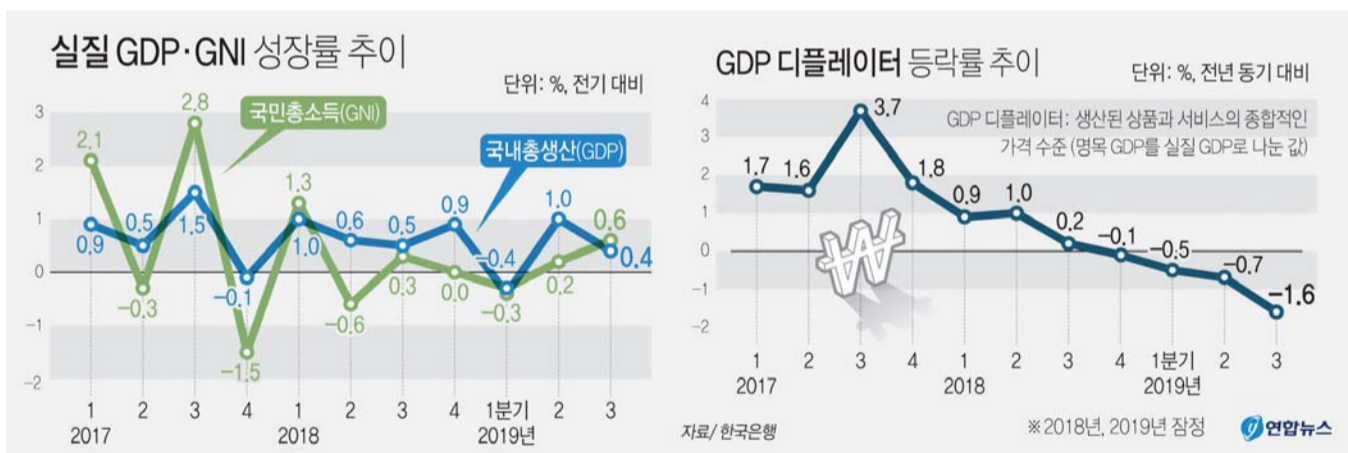
포괄적인 물가 수준을 나타내는 GDP디플레이터는 외환위기 후 최저치인 -1.6%까지 떨어지며 사상 처음으로 4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저성장·저물가 기조가 계속되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 것으로 보인다.

### ◆3분기 성장률 0.4%...연 2.0% 달성 가능성 '글썽'

한은이 3일 발표한 '2019년 3분기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3분기 실질 GDP는 전기 대비 0.4% 성장했다. 이는 지난 10월 발표된 속보치와 동일했다. 다만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보면 0.41%로 속보치(-0.39%)보다 0.02%포인트 높아졌다.

3분기 성장률은 2분기 성장률(1.0%)의 절반에도 못 미치며 0% 성장률을 기록했다. 투자 부진, 민간소비 둔화 등 내수가 위축된 영향이다.

지출항목별로 보면 건설투자는 6.0% 감소했다. 건물·토목건설이 모두 줄어든 영향이다. 속보치(-5.2%)보다 0.



8%포인트 감소하며 지난해 3분기(-6.0%)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설비투자와 민간소비 성장률은 각각 0.6%, 0.2%로 속보치(0.5%, 0.1%)보다 0.1%포인트 올랐다.

수출은 반도체·자동차 수출물량 개선 등으로 4.6% 증가하며 2분기(2.0%)보다 확대됐다. 반면 정부소비는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기저효과로 2분기 2.2%에서 3분기 1.4%로 감소했다.

이 영향으로 정부의 성장 기여도는 2분기 1.2%포인트에서 3분기 0.2%포인트로 크게 축소됐다. 민간의 성장 기여도는 0.2%포인트로 2분기 -0.2%포인트에서 플러스로 전환했다.

수출 부진이 계속되고 투자와 민간소비 둔화세가 계속되고 있어 올해 2%대 성장률 달성 가능성은 낙관하기 힘든 상황이다. 지난달 29일 한은이 발표한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인 2.0%를 달성하기 위해선 산술적으로 올해 4분기 성장률이 전기 대비 0.93~1.30%는 높아야 한다.

### ◆GDP디플레이터 4분기 연속 마이너스

### 스...디플레이션 우려 ↑

올해 3분기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물가수준이 외환위기 이후 20년 만에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분기 GDP디플레이터는 -1.6%로 한은이 관련 통계(2015년 기준)를 집계한 2000년 1분기 이후 역대 최저치다. 구계열(2010년 기준) 기준으로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였던 1999년 2분기(-2.7%) 이후 가장 낮았다.

특히 지난해 4분기(-0.1%), 올해 1분기(-0.5%), 2분기(-0.7%)에 이어 4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GDP디플레이터가 4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처음이다.

GDP디플레이터는 명목GDP를 실질GDP로 나눈 것으로 국민소득에 영향을 주는 가계소비, 수출, 투자, 정부지출 등 경제 전반의 물가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다.

통상 GDP디플레이터가 마이너스를 기록할 경우 경제활동 위축 우려가 커지는데 한은은 디플레이션 우려를 경계했다. GDP디플레이터를 끌어내린 건설수출품 가격 하락 영향이 크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분석이다. GDP디플레이터에서 수출 디플레이터는 6.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변동이 반영된 명목 GDP는 전기 대비 0.1%, 전년 동기 대비 0.4% 증가에 그쳤다. 전년 동기 대비 명목 GDP는 구계열 기준 외환위기 시기였던 1998년 4분기(-5.3%)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국민이 일정 기간 국내외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의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전기 대비 0.6% 증가해 2분기(0.2%)보다 증가율이 확대됐다. 실질 GDP(0.4%)와 국외순수취요소소득(3조900억원→6조2000억원)이 늘어난 영향이다.

총저축률은 3분기 35%로 2분기보다 0.4%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최종 소비지출이 0.3% 늘어나면서 국민총처분가능소득 증가율(1.0%)을 밀돌았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국내총투자율은 건설투자 약화 등으로 31.9%에서 30.4%로 1.5%포인트 하락했다.

/김희주 기자 hj89@

## '정책자금 서민대출' 은행 등 공공기관 사칭 불법대출 주의 경보

정책자금 지원 등 공공기관을 사칭한 불법업체의 대출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공공기관, 은행 등을 사칭한 불법대출 문자메시지가 급증해 소비자피해 주의 경보를 발령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불법금융광고 제보 민원 160건 중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제보건이 32건(20%)을 차지했다. 작년에는 이와 유사한 불법금융광고 제보 접수민원은 단 1건에 불과했다.

불법업체들은 주로 페이스북에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사칭한 '서민금융원', '국민자산관리공사'라는 상호를 사용했다. 또 한국재무관리, 국민자금지원센터 등 마치 합법적인 공공기관처럼 보이는 상호도 썼다. 집무중인 대통령의 사진이나 정부기관의 로고를 게시해 마치 정부의 합법적인 대출처인 것처럼 연출하기도 했다.

불법광고는 서민정책 대출인 것처럼 위장했다. ▲정부지원자금의 대출조건을 대폭 완화 ▲대출자를 추가 모집 중 ▲모바일 대출로 간소화 등으로 소비자를 현혹했다. 특히 ▲대출 승인율 90% 이상 ▲정책자금 예산한도 소진 임박 ▲최근 모바일 대출신청자 급증 등의 문구로 대출 심리를 압박하기도 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대출관련 모바일 앱을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대출방식도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해 알맞은 대출을 받도록 안내하고 있다.

/안상미 기자 smahn1@